

어머니주일  
설 교

## 어머니의 기도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사무엘 상1:1-28)

이시바시마리에 전도사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주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한 사무엘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이며 믿음의 사람인 사무엘의 탄생에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 상 1장을 통해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한나의 고통

에브라임산지에 사는 엘가나에게 두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불임으로 고민하고, 한나를 적대시하는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6절).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한나의 고뇌는 오래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남편 엘가나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고통 속에서 셀 수 없이 눈물을 흘린 한나였지만 이번에는 울기 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9절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써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는 울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일어섰습니다. 이 짧은 한나의 말에 그의 마음의 변화를 알수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어설 믿음이 필요합니다.

### 2. 한나의기도

한나는 일어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10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12-13절).

한나는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쏟아냅니다(15-16 절). 어

디에도 향할 수 없었던 마음의 고통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죽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11절).

한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이해자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도 후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18절)” 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한나의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괴로워하는 아내를 엘가나는 위로합니다 (8절). 그러나 남편의 말도 한나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주님께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 3. 한나의축복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과 심정을 토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19절). 한나는 임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이라고 명했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24-28). 이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2:21) 주님은 한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주께 향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 심정을 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ブ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 전국 각지방 여성회가 정기총회 개최

## 관동지방회 제66회정기대회

제66회 관동지방 교회여성회 연합회 정기대회가, 2018년 3월 21일, 요코하마교회에서 각 교회로부터 파견받은 31명의 총대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이명충목사(요코하마교회)가 ‘브르스길라와 아굴라’(행18:1-3)라는 제목의 설교, 이해숙목사(사랑의교회)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2부 회의는 박영원회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 각종 보고 및 전국여성회 회장 이현지권사, 및 총무 이시바시마리에전도사와 함께 종회선교 110주년 기념 행사 중에 준비된 전국여성회 수양회를 위한 의견교환으로 회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대회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마쳤다.

(보고: 김현정)



## 관서지방회 제65회정기대회

2018년 3월 22일(목) 교토교회에서 관서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제65회정기대회가 13 교회에서 49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박성균목사(관서지방회회장)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롬8: 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은 후에 박애선목사(이마후쿠)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회의는 의사는 김금순 회장의 사회로 지향하여 총회장 김종현목사의 축사를 받고 각종 보고와 5건의 현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폐회예배는 임명기 목사의 <제자와 나르시시즘>(갈2:20)의 설교 및 축도로 마쳤다. (보고: 전조묘)



## 서남지방회 제64회정기대회

2018년 4월 21일, 좋은 날씨 속에서 서남지방 교회여성연합회의 2018년도 제64회 정기 대회가 후쿠오카 교회에서 6개의 교회에서 20명의 총대들이 모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김인과 목사의 <나를 사랑하느냐>(요21:15~23) 설교, 또한 서남지방회회장 이해란목사의 <도전하는 여성>도 강력한 귀한 말씀이었다.

전국여성연합회에 서 이시바시마리에총무도 참가해서 모두가 감사했다. 아직 여성회에 참가할 수 없는 교회가 있지만 더욱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서남지방여성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보고: 한영란)



## 중부지방회 제58회정기대회

2018년 4월 5일(목) 나고야교회에서 중부지방 여성연합회 제5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아라이 유키 목사(나고야교회)가 “기쁨으로” (별립보서1:12-2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에 아라이목사에 의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진 회의는 송복희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활동계획 및 예/결산안의 심의와 승인이 있었다. 은혜 가운데 대회를 마치고, 폐회예배에는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전국여성연합회총무)의 설교 후 중부지방회 최화식목사의 축도로 폐회예배와 정기대회를 마쳤다.

중부지방의 지역적인 범위가 넓어서 모이기 어려운데다가 교회의 신도수의 감수로 대의원수가 줄기도했으나(총26명) 금년에는 나고야교회 김성숙장로와 하마마츠교회 박영은장로의 장립도 있어, 교회 여성으로써의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보고: 송복희)



## 서부지방회 제33회정기대회

서부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33회 정기대회가 2018년 4월 17일(화) 가와니시교회에서 14교회에서 30명(대의원15명)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서 한세일목사(고베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자>(삼상1:12-18)의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성찬식은 이중재목사(가와니시교회)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최미혜자회장의 사회로, 역대회장, 신 총대, 내빈소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시바시에리전도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각종 보고 및 안건토의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고, 활동방침이 검토되었다.

6월에는 울산 자선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이다.

(보고자: 윤풍자)



豊かな味、豊かな心。

喜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합동 신도연수회 개최 「빛과 소금의 교회」 주제로 여성회와

2018년 3월 20일(화)~21일(수)까지 1박 2일동안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주제로 김필순목사(사카이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아이치健康プラザ에서 신도공동연수회를 가졌다. 참가인원은 40명이었다.

김필순목사는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지금까지의 교회 현장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교회의 사명과 신도의 역할 등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 KCCJ 인권심포지움 개최 「천황 퇴위 및 즉위 행사에 관한 요망서」 작성

지난 4월 8일~10일의 일정으로 京都남부교회를 장소로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KCCJ 인권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금번 심포지움은 성명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점에서 발제, 성서 연구 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쿠마모토, 오이타 지진 발생으로부터 2년을 지나면서 아직도 가설주택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해 가는 것을 확인 했다.

또한 내년에 예정하고 있는 <천황 퇴위 및 즉위 행사에 정교분리에 관한 요망서>를 참가자 전원에 의해 작성되어 종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금년은 KCCJ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약자들에게다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KCCJ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보고 : 사회위원회)



## 熊本소식

## 熊本·大分지진 발생부터 2주년을 맞아

2018년 4월 16일 일본기독교단 錦ヶ丘(니시카가오카) 교회에서 「熊本·大分지진 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45명의 참가자와 KCCJ에서는 사회위원장 정수환목사, 서남지방회장 이해란 목사, 총간사 김병호목사 등이 참석하였다.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 의장 梅崎浩二(우메미야코지) 목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예배에는 정수환목사의 사회와 큐슈교구 부의장 日下部遺志(쿠사카베 켄지) 목사가 누가복음 24:13~35의 본문으로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제목으로 메세지와 이해란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는 피해를 입은 쿠마모토, 오이타 지구의 보고 및 엘피스 쿠마모토(김성효목사), 福島이주 여성 지원(佐藤信行) 등의 보



## 부활절 공동찬양예배 개최 6교회에서 160명이 참가해서 찬미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주최로 제21회 부활절 공동찬양예배가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오후, 고베동부교회당에서 개최되어 160명이 참가하였다. 이 찬양예배는 2년에 한 번 여성회 주최로 공동찬양예배로 드린다. 원거리 오카야마교회로부터 서부지방회의 여섯교회와 부활예수그리스도교회(단립)의 특별참가로 정말 아름다운 찬양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이성우목사(아카시교회)의 [최고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 참가해, 각교회의 특징있는 곡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였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성회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석하는 서부지방 성도님들의 교류가 한층 깊은 행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때 까지]를 합창하고 이성우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보고 : 윤풍자)



## 전국 교회 기도 달력

\* 선교위원회는 금년 매주일에 전국의 각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위원회

## 4월에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 6일 : 千曲ビジョン伝道所(崔鍾福牧師)
- 13일 : 浜松教会(権潤日牧師)、豊橋教会(鄭守煥牧師)
- 20일 : 岡崎教会(許光涉牧師)、豊田めぐみ伝道所(鄭守煥牧師)
- 27일 : 名古屋教会(新井由貴牧師)、  
名古屋南教会(全炳玉牧師)

## 오사카 제일 민박 OSAKA STAY

대표 정홍권 장로/안희자 권사(오사카교회)

大阪市生野区中川西3-9-6(大阪教会近く)

TEL 06-6777-7033 /携帯090-8538-4433

Kakao ID : ntip0033

Email:osakastay@dune.ocn.ne.jp

<http://www.osaka-stay.net>

大阪市指令許可書 11549号

고가 있었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264명(관련 사망 포함), 가설주택 피난민이 약 3만8천명(4월 현재), 그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KCCJ 각교회에 이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위해 현금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회위원장 정수환)



# 2018년 「제17회 KCCJ인권심포지움」

## 성 명 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 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2장 15-20절)

### 1. 들어가며

2018년, 재일대한기독교회(KCCJ)는 이 일본 땅에서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들은 한반도와 일본의 틈새를 살아온 “재일기독교인”(기류민)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KCCJ에 주어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작은 자들의 생명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KCCJ의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해, KCCJ 교토남부교회에서 “제17회 KCCJ인권심포지움”을 2018년 4월 8일~10일에 개최하였다.

총회주제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부제 :KCCJ110주년과 생명의 선교 「평화·인권·공생사회를 생각하자」를 내걸고, ‘재일한국인그리스도로서 피재해지역에 과송되어서-나드 향유를 가지고-(김성효)’, ‘성서연구(코가 키요타카)’, ‘조선학교고교 무상화 재판보고(김성희)’, ‘인보로부터 폭넓은 다문화 공생-히가시쿠조의 여러가지 대처(마에카와 오사무)’, ‘‘만남’을 만들어내자-한 사람의 기독자로서-(강영자)’, ‘일본·재일교회의 선교과제-RAIK 퇴임을 앞두고(사토 노부유키)’의 발제자와 강연자로부터 일본에서 사는 모든 마이너리티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배우고, 다양한 입장, 시점으로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는 작은 자들의 생명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소중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 2. KCCJ의 활동과 사명

지금, 자국우선, 경제우선을 내걸은 국가들은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격차 사회가 고정화되어지고 있다. 그런 흐름 가운데, 배외·배타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세계를 석권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KCCJ는 1908년부터 한반도에서 삶의 양식을 찾아 도일할 수 밖에 없었던 자, 또 일본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징용된 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징병되어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진 자나 그의 가족의 의지 기반이었다. 또 1945년 일본의 패전후에도 차별과 편견에 의해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살 수 밖에 없었던 동포와 그의 자손들의 피난처였다. 앞으로의 KCCJ는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국가에서 오는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기능실습생, 격차사회에 의해 내버려진 경제적 약자, 피차별부락, 일본의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누·오키나와의 소수자, 자연재해를 입었으나 잊혀져 가는 이재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것이 요구된다. 특히 헤이트 스파치에 노출되어 있는 조선학교의 학생들의 생명을 함께 지킬 필요가 있다. 또 KCCJ는 지역 사회에 공생의 마을 만들기를 위해 일해야 하고, 공생의 길을 가리키는 중인이 되는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

KCCJ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동포의 의지기반으로서 토대를 놓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장막을 펼쳐나가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 3. 결의 표명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천막을 펼치기 위해서는 마이너리티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을 남기고 전하는 것, 작은 자들의 생명과 함께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기독자로서의 역할을 이제까지보다 더 많이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기독교협의회나 RAIK, KCC, 서남KCC, 마이너리티선교센터, 각지역의 외기련,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자연락협의회 등의 기관·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마이너리티의 생명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어질 때까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여 격차를 넣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편견과 차별을 묵인하지 않고, 작은 자들과 함께 소리를 사회에 발신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목표로 다민족, 다문화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구마모토 이재민 지원을 계속한다.
- 2)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조선고교무상화 재판을 지원한다.
- 3)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 4) 헤이트 스파치 근절을 위한 인종차별철폐법 제정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10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제17회 KCCJ인권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서남재일한국기독교회관(서남KCC)